

센티먼트 개선이 쉽지만은 않은 환경



은행 Weekly | 2025.9.1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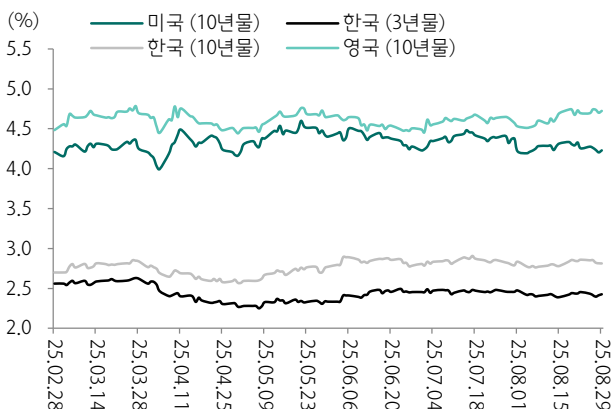
- 정부가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기정사실화. 중소기업중앙회가 구상한 초안이 정부측에 전달된 상태. 4대 은행의 올해 예상 상생 금융 지원액은 5.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익 대비 비중도 올해 30%대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
- 정부는 배당금과 서민 대상 대출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해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는 교육세를 1.0%와 과세표준에 대해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정부의 국정 과제인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 기존에 나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이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할 수 있기 때문
-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과정과 이자율을 공개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권에 출혈경쟁 우려. 지자체간 수신 이자율이 2023년 기준 0.5%에서 4.7%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후에 나온 지시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5년 8월 29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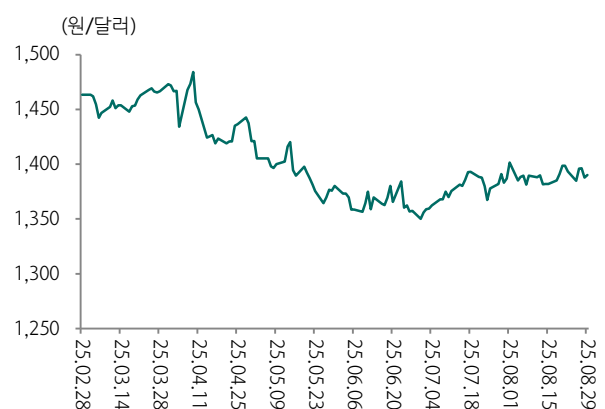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19	21.1	5.6		2,619,011.1	0.5	-2.1	18.1	32.8	307.5	76.7	-1,167.7	364.6
은행	0.53	6.1	8.8	0.63	152,964.7	-0.6	-3.5	13.5	39.2	106.1	-28.7	-118.3	13.2
KB 금융	0.64	7.1	9.3	0.72	41,274.2	-0.2	-4.1	3.7	30.5	13.1	-7.8	-1.8	-11.7
신한지주	0.54	6.7	9.0	0.66	31,702.8	-2.1	-5.2	12.4	37.0	38.6	-5.3	-61.4	23.3
우리금융	0.51	6.0	8.7	0.57	18,416.3	-0.4	-0.8	28.7	61.4	5.5	0.2	2.1	-7.2
하나금융	0.50	5.7	9.1	0.62	23,404.3	-0.1	-4.4	13.1	44.7	28.8	-8.0	-32.8	4.3
기업은행	0.43	5.5	8.0	0.57	15,167.0	-0.7	-2.5	20.8	32.7	-2.1	-8.7	-6.1	8.8
BNK 금융	0.41	5.4	7.7	0.54	4,527.7	0.5	-1.1	30.2	39.3	20.9	4.0	-18.8	-2.5
IM 금융	0.35	4.6	7.7	0.48	2,221.8	-1.6	-1.2	22.7	67.6	1.5	-0.4	-2.3	0.5
JB 금융	0.72	6.4	12.0	1.02	4,492.8	3.3	0.0	24.5	44.3	-0.2	-2.7	2.8	-2.4
카카오뱅크	1.71	23.4	7.5	0.76	11,757.8	-1.8	-14.0	4.9	17.1	3.8	0.4	-13.9	9.2
삼성카드	0.67	8.9	7.6	2.17	5,850.9	0.4	1.5	16.9	28.0	0.9	-0.6	-0.3	-0.1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0.6% 하락해 KOSPI 상승률 0.5% 대비 소폭 초과하락. 주초 약세 출발에도 불구하고 1) 정부가 교육세 과세표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도 신규 주담대에만 적용하기로 하면서 은행주 투자심리가 소폭 개선되기 시작했고, 2) 여기에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주와 지주사를 중심으로 주종 반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음. 다만 은행주의 경우 규제 및 과징금 관련 노이즈가 지속되고 있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 게다가 정치권에서 정부의 교육세 과세표준 완화 검토에 대해서도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전주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세 지속. 트럼프의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 등 연준 흔들기 우려에다 미국 7월 PCE가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 다만 근원 PCE는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금요일 장기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전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23%로 한주간 3bp 하락했으며, 2년물 국채금리는 3.62%로 한주동안 8bp 하락해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는 양상. 한편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KOSPI 순매도 여파 등으로 상승. 1,389.8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6.3원 상승했음. 지난주에도 외국인은 은행주를 1,180억원 순매도. KOSPI 순매도 규모 1.2조원을 감안시 매도 강도는 여전히 높았던 편. 전주 국내 기관은 은행주를 1,060억원 순매수했는데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분 860억원을 제외한 실질 순매수 규모는 미미했던 수준
- 전주 특징주는 JB금융. 전전주 홀로 상승에 이어 전주에도 주가가 3.3% 상승해 은행 중 가장 큰폭 상승.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주가 강세의 배경으로 판단. BNK금융도 주가가 0.5% 상승해 선방했는데 삼성기업 총당금 환입으로 3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주가 선방의 이유로 추정. 반면 신한지주는 외국인 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주가가 2.1% 하락해 은행 중 하락 폭이 가장 커 상대적으로 부진
- 주요 언론에 따르면 상생금융지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 해당 지수 도입을 건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구상한 초안이 정부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짐. 평가항목은 금융위·금감원 주관 실적평가 60%(중소기업대출 공급 규모, 대출조건의 질적 개선, 중소기업 혁신금융, 동반성장 의지)와 동반성장위원회·중기중앙회 주관 체감도조사 40%(대출금리와 규모 만족도, 대출기간·만기 연장 만족도 등등)로 이루어지고 6대 대형은행에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화될 수 있고, 높은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음. 상생금융지수는 매년 1회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이 화두가 되고 있는만큼 이를 은행 평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
-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후 첫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감독·감사 업무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으로 주요 언론에 보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침해 사례가 없어야 하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문. 한편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금융사로부터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받는 대책도 시행한다는 방침. 배상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업권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할 예정. 도입시에도 순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무과실 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는 다소 커질 전망
- 정부가 교육세 과세표준 완화를 추진할 경우 교육세 증가분의 약 15% 정도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치권의 강경 입장으로 인해 과세표준 완화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고, 상생금융지수 도입 및 보이스피싱 배상 외에도 정치권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다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규제 노이즈는 계속 확대될 전망. 여기에 홍콩ELS 및 은행 LTV 담합 과징금 등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주에 대한センチ멘트 위축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 외국인이 다시 완전한 순매도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수급상 부정적인 요인. 밸류업에 기반한 은행주 중장기 투자매력은 여전하지만 당분간은 규제 리스크와 과징금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은행보다는 규제 이슈에서 빚겨나 있고 절대 PBR이 낮은 중소형은행들이 방어적 측면에서의 매력에 부각될 수 있을 듯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BNK금융(매수/TP 19,000원), iM금융(매수/TP 17,500원)

- 규제 노이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규제 리스크와 과징금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은행보다는 규제 이슈에서 다소 빚겨나 있고 절대 PBR이 낮은 중소형은행들이 방어적 측면에서의 매력에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BNK금융은 3분기에도 삼성기업 총당금 환입 등에 힘입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 시현 예상. iM금융은 현 PBR 0.35배로 절대 PBR이 은행 중 가장 낮는데다 올해 예상 총주주환원수익률이 7.8%에 달해 배당매력도 가장 높은 은행

Global Peer Table

(2025년 8월 29일 종가 기준)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19	21.1	5.6		2,619,011.1	0.5	-2.1	18.1	32.8
은행	0.53	6.1	8.8	0.63	152,964.7	-0.6	-3.5	13.5	39.2
KB금융	0.64	7.1	9.3	0.72	41,274.2	-0.2	-4.1	3.7	30.5
신한지주	0.54	6.7	9.0	0.66	31,702.8	-2.1	-5.2	12.4	37.0
우리금융	0.51	6.0	8.7	0.57	18,416.3	-0.4	-0.8	28.7	61.4
하나금융	0.50	5.7	9.1	0.62	23,404.3	-0.1	-4.4	13.1	44.7
기업은행	0.43	5.5	8.0	0.57	15,167.0	-0.7	-2.5	20.8	32.7
BNK금융	0.41	5.4	7.7	0.54	4,527.7	0.5	-1.1	30.2	39.3
IM금융	0.35	4.6	7.7	0.48	2,221.8	-1.6	-1.2	22.7	67.6
JB금융	0.72	6.4	12.0	1.02	4,492.8	3.3	0.0	24.5	44.3
카카오뱅크	1.71	23.4	7.5	0.76	11,757.8	-1.8	-14.0	4.9	17.1
삼성카드	0.67	8.9	7.6	2.17	5,850.9	0.4	1.5	16.9	28.0

미국

S&P 500	5.00	24.3	18.8	4.61	56,885.2	-0.1	2.0	9.6	9.8
은행	1.58	13.9	11.4	1.02	2,019.8	2.2	4.2	16.2	20.0
Wells Fargo	1.56	14.5	11.7	1.03	263.3	3.9	2.5	10.5	17.0
JPM	2.38	15.4	16.5	1.26	828.8	1.7	1.7	14.7	25.7
CITI	0.87	12.7	7.4	0.59	177.8	1.4	3.7	29.0	37.2
BOA	1.33	13.9	10.1	0.85	375.8	2.5	7.3	15.6	15.4
US Bancorp	1.34	11.2	12.5	1.05	76.0	1.1	8.6	13.3	2.1
PNC	1.52	13.3	11.9	1.13	81.7	2.9	9.0	20.4	7.6
BB&T	1.00	12.1	8.5	0.96	60.4	2.0	8.4	20.0	7.9

중국

상해A주지수	1.42	15.0	9.9	1.43	60,643.1	0.8	8.1	17.1	15.1
은행	0.71	7.5	9.6	0.73	12,071.8	-2.7	0.3	8.2	10.6
공상은행	0.68	7.4	9.3	0.71	2,461.3	-2.6	-1.7	7.3	7.4
건설은행	0.68	6.9	9.9	0.80	1,842.1	-2.3	-4.4	-0.3	2.4
농업은행	0.88	9.1	9.9	0.64	2,388.7	-3.8	11.4	29.5	31.5
중국은행	0.65	7.5	8.6	0.71	1,642.8	-3.2	-0.5	0.0	0.2
교통은행	0.54	6.5	8.3	0.61	603.4	-4.0	-5.0	-4.3	-6.4
초상은행	0.94	7.4	13.1	1.20	1,086.3	-0.9	-3.6	3.1	9.1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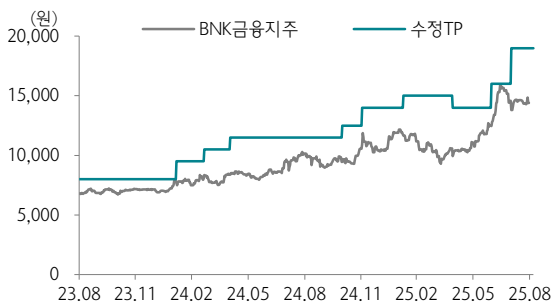
NIKKEI	2.13	20.3	9.9	3.15	774,623.8	0.3	4.1	12.7	7.1
은행	1.07	12.4	8.6	0.38	86,933.7	-1.0	7.4	14.4	21.5
Mitsubishi UHF	1.22	12.6	9.9	0.59	27,261.0	-1.4	7.0	11.5	22.4
Sumitomo Mitsui Financial	1.01	11.4	9.3	0.53	15,614.8	-1.9	5.0	9.4	7.5
Mizuho	1.10	11.6	10.0	0.41	12,304.8	1.6	9.2	22.3	26.4
Sumitomo Mitsui Trust	0.93	10.2	9.3	0.39	3,009.3	-2.3	6.1	7.5	14.4

유럽

MSCI Europe	2.15	15.9	12.7	1.57	13,439.3	-1.9	1.2	0.6	8.2
은행	1.18	9.6	12.2	0.65	1,547.1	-4.4	2.1	8.5	39.4
HSBC	1.27	9.5	13.1	0.73	164.2	-2.1	3.4	9.3	20.6
Santander	1.21	9.5	13.1	0.75	121.5	-1.9	8.3	16.1	82.8
BNP Paribas	0.74	7.5	9.7	0.41	86.9	-7.9	-4.0	-0.4	29.7
Credit Agricole	0.66	7.2	9.6	0.26	47.3	-8.4	-3.2	-2.9	17.6
Deutsche	0.88	10.4	8.3	0.42	58.5	-5.2	4.1	22.7	80.5
Unicredit	1.56	10.1	16.3	1.24	102.9	-4.6	2.2	16.8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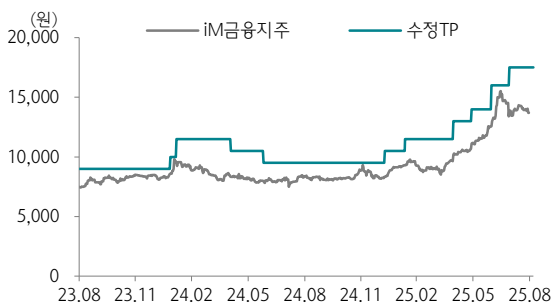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BNK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8.1	BUY	19,000		
25.6.30	BUY	16,000	-7.88%	-0.31%
25.4.28	BUY	14,000	-20.70%	-9.21%
25.2.7	BUY	15,000	-28.96%	-21.27%
24.12.2	BUY	14,000	-20.72%	-13.14%
24.10.31	BUY	12,500	-22.39%	-15.52%
24.5.2	BUY	11,500	-21.47%	-10.52%
24.3.21	BUY	10,500	-24.31%	-19.33%
24.2.5	BUY	9,500	-17.50%	-12.21%
23.4.5	BUY	8,000	-13.74%	-1.63%

iM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7.29	BUY	17,500		
25.6.30	BUY	16,000	-10.24%	-3.06%
25.5.29	BUY	14,000	-16.30%	-10.14%
25.4.29	BUY	13,000	-19.30%	-17.77%
25.2.10	BUY	11,500	-19.99%	-15.04%
25.1.8	BUY	10,500	-14.72%	-11.62%
24.6.25	BUY	9,500	-13.31%	-1.79%
24.5.3	BUY	10,500	-22.34%	-18.48%
24.2.5	BUY	11,500	-23.59%	-16.78%
24.1.26	BUY	10,000	-7.78%	-2.00%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9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5년 9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89%	4.11%	0.00%	100%

* 기준일: 2025년 8월 29일